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 85 / 전화 713-5254 (사무실) 717-2605 (담임목사실)  
HOME PAGE: [www.chungpa.or.kr](http://www.chungpa.or.kr)

#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성령강림절 후 제22주】

전 주 .....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 주의 전에 나올 때 .....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 경배의 찬송 ..... 50. 큰 영화로신 주 ..... 다함께

♠ 공동기도 ..... 다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민족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서있는 우리 영혼은 남루합니다. 정욕에 이끌리다보니 신성한 불꽃은 꺼지고, 허위단심으로 살다보니 사랑의 샘은 말라버렸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한 입을 막으라 하셨으나, 우리 스스로 불평을 터뜨리며 살았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종교개혁기념주일로 지키는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교회들이 잃어버린 근본을 되찾도록 이끌어주십시오.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지 못하는 자폐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흠어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교회도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 다함께

♠ 위로의 말씀 ..... 시121:5-6 ..... 인도자

♠ 교 독 문 ..... 73. 종교개혁주일 ..... 다함께

♠ 영 광 송 ..... 6. 찬양 성부 성자 성령 ..... 다함께

대표기도 ..... I. 김서현 선생 II. 한완식 장로

응 답 송 ..... 찬양대

찬 송 ..... 272. 인류는 하나 되게 ..... 다함께

성경봉독 ..... I. 갈 1:1-6:18 ..... 인도자

II. 겔22:23-31 ..... 박애순 집사

찬 양 ..... 찬양대

말 씬 ..... I. 할례 vs 십자가 ..... 이성운 전도사

II. 앞드림으로 일어서라 ..... 김기석 목 사

거둬기도 ..... 다함께

- 현신의 찬송 ..... 391. 십자가 군병 되어서 ..... 다함께
- 봉 헌 ..... <오카리나 연주> ..... 다함께
- ♠ 봉 헌 송 ..... 69. 나 가진 모든 것(1,2) ..... 다함께
- ♠ 봉헌 및 목회기도 ..... 인도자
- 공동체 소식 ..... 인도자
- ♠ 평화의 인사 ..... 다함께
- ♠ 보냄의 말씀 .....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사막과도 같은 현실 속에서 정처 없이 방황하는 이들에게 길 찾은 자의 아름다움을 몸으로 증거하며 사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답게 살고 싶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덧입고 살게 해주십시오. 은총을 인해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우리는 이들과 더불어 울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증언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 ♠ 결단의 찬양 .....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 다함께
- ♠ 축 복 ..... 담임목사

☼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

<b>주일 오후 집회</b>	<b>수요 집회</b>
신약성서의 맥잡기/김기석 목사	성서로 배우는 평화/김기석 목사
기도 : 오현정 집사	기도 : 이광섭 집사

<b>다음 주 예 배 위 원</b>	<b>설교</b>	<b>기도</b>	<b>성경봉독</b>
	김기석 목사	윤석철 장로	이재구 집사

<b>10월</b>	영접위원	구성실	김중수	박병희	이순정	고숙이	박미영
	헌금위원	한완식	김인걸	김용진	최영혜	장혜숙	박홍재

## 하나님의 식솔

평화운동가들 가운데 우리 시대의 엄청난 위협들에 매몰되어 기쁨을 잃고 파멸의 예언자가 되어버린 이들이 많다. 하지만 냉정하게 세상의 종말을 선언하며 사람들을 평화사업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평화운동가가 아니다. 평화와 기쁨은 형제자매와도 같다. 이 둘은 한통속이다. 내가 살아오면서 평화로운 순간에 매우 기쁘지 않았던 적은 없다. 복음서를 보아도 기쁨과 평화는 늘 함께 나온다. 천사는 목자들에게 평화의 왕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다. 모든 백성들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이다.”(눅2:10)라고 말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당신의 평화사업을 완수하고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은 기쁨에 넘쳐(눅24:52 참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러기에 평화의 복음은 곧 기쁨의 복음이다. 그러기에 평화사업은 기쁨에 찬 사업이다.

이 기쁨은 반드시 행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기쁨과 슬픔이 반대되는 것이요, 기쁨에는 고통, 아픔, 불안, 고민 따위가 끼여들여지가 없다고 믿도록 길들여졌다. 하지만 복음 속의 기쁨은 십자가에서 태어나는 기쁨이다. 이것은 승리의 잔치가 주는 메마른 행복이 아니라 몸부림 속에 숨어 있는 심원한 기쁨이다. 이것은 악과 죽음이 우리에게 결정적인 힘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는 기쁨이요,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겠지만 크게 기뻐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요16:33)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뿌리를 박고 있는 기쁨이다.

따라서 죽음을 향해 외치는 ‘아니오’는 생명을 향한 겸허하고 인정 있고 기쁨에 찬 ‘예’와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되고 실천될 때 비로소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저항은 죽음에 대한 ‘아니오’와 생명에 대한 ‘예’가 결코 분리되지 않을 때라야 진실한 영적 과업이 된다.

세상 도처에서 확산되고 있는 기아와 굶주림과 가난, 그리고 계속 커가는 핵전쟁의 위협은 우리에게 두려워하고 심지어는 절망에 빠지게 하는

수많은 이유를 제공한다. 우리가 사방에서 죽음의 목소리들을 듣고 죽음의 권세가 위세를 떨치는 표지들을 무수히 발견할 때, 생명이 정말로 죽음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믿기가 힘들어진다. 그 누구도 핵전쟁에 관해 알고 있지 못하던 오랜 옛날에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원수인 악마가 으르렁대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돌아다닙니다”(벘전5:8)라고 경고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새롭고 구체적인 의미로 다가온다. 이 말은 우리의 두려움을 훌륭하게 요약하고 있다.

베드로는 이 사자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가? 그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악마를 대적하십시오”(벘전5:9)라고 말한다. 이 말은 사실 우리의 체험이나 기술, 지성 내지는 의지력이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는 악과 죽음의 권세를 이미 물리치고 승리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토대로 싸워 나가는 영적 항거에 관한 요약이다. 개인의 죽음이든 집단의 죽음이든 모든 죽음을 물리치신 그리스도의 승리 덕분에, 죽음은 이제 더는 우리에게 결정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우리는 이제 어두운 절망의 세계에 갇혀 있지 않으며, 이미 하나님 안에서 생명이 영원토록 이어질 뿐 죽음이 설자리는 전혀 없어진 우리의 보금자리를 발견한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머물고 있지만, 더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우리는 신앙 덕분에 지금부터 하나님의 식솔이 되고, 하나님의 무진장한 사랑을 맛볼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진실로 어디에 속해 있느냐를 아는 이 지식이야말로 우리를 해방하여 죽음에 항거하는 맹렬한 저항자로 만들어 주는 한편, 가는 곳마다 인정을 가지고 겸손하고 기쁘게 생명을 선포할 수 있게 해준다.

우리가 분명히 해 두어야 할 점은 저항이 기도와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기도의 한 형태라는 것이다. 평화 만들기에서 저항은 행동의 뒤편이고 기도는 관상의 뒤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극복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하지만 내가 갈수록 확신하게 되는 것은, 기도가 저항의 한 형태일 뿐만 아니라 저항 또한 기도의 한 형태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가 평화 만들기의 의미를 온전히 터득하게 된다는 점이다.

-헨리 나웬의 글을 존 디어가 엮어 펴낸 <<평화에 이르는 길>> 중에서

## ■ 마/음/으/조/워/는/글

### 늪우침

이렇게 오시는 님 내 몰라 바렸으니  
날 다시 찾으신들 내 무슨 낫을 들리  
님이여 종으로 보고 문간에나 두소서.

님 떠나가신 뒤에 밤 어이 길고길고  
비바람 무슨 일로 그리도 둘러친지  
기다려 참을 보잔 걸 내 모르고 저바려.

울고 또 운단들 내 설움 다 하오리  
깨물고 깨문단들 내 분이 풀리오리  
님이여 내 아픈 맘을 그 줄이나 아소서.

울지 말고 돌아오라 이제라도 아니 늦어  
지난 허물 아니 보고 새 살림 차려주마  
마음 곧 바친다면야 묶어둘 죄 있으랴.

네 어미 갈보거니 녀들 깨끗할 것이냐  
수정 같은 살을 찾아 하늘 아래 만날 거냐  
씩어질 살을 안 보고 마음 찾아 왔노라.  
(함석헌)

###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장로 :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한선희 김수진 최미선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 헌금 영수기 ◇

### 십일조헌금:

김철수 유영남 김혜권 고광송 이춘희 박규석 박경선 정복순 임승동  
 백혜숙 정완수 김재광 최종원 홍순구 안홍숙 박정숙 김민주 조병무  
 송양진

### 월정헌금:

권 순 윤정화 김정애 김현영 정원석 권혁순 박혜경 이경남 김승현  
 김수진 유증희 이재문 전영규 김경수 김순자 이은자 황원순 황자순

### 감사헌금:

김광수 장영숙 윤정덕 구성실 이재문 한선희 정복순 김순복 문복순  
 박병구 박경선 허경기 노민경 류건형 오정숙 박정숙 시므온 선교회  
 무명5

생일감사헌금: 조병주

### 100주년 기념사업헌금:

최윤희 정두리 김용길 최영혜 하현철 최성애 이선림 배근수

### 캄보디아 우물헌금:

최철수 광권희 김용길 최영혜 류건형 이주은 임원민 임수연  
 (100주년 헌금 누계 : 121,190,000원)

## ◇ 속회 보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장혜숙	장혜숙	오송경	연합속회
베들레헬	노순옥	정경례	박홍엽	
안디옥	임정자	이춘희	임정자	
가나안	문영혜	박경선	문영혜	
갈릴리	안정숙	박애순	문금석	
베다니	박홍재	광권희	백묘현	
시온	박효선	허정윤	박효선	
엠마오	최숙화	권미정	권미정	
에베소	이순정	김금순	김금순	
빌립보	이형숙	권미숙	이정은	
가버나움	안홍숙	오현정	정지은	
나사렛	백혜숙	정옥영	백혜숙	
갈라디아	송양진	유경순	김명희	
고린도	이영란	이증자	유혜경	
다메섹	박혜경	최영혜	박혜경	

